

2021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출문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귀하

이 보고서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 연구기관 :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책임연구원 : 윤명자 (센터장)
- 연구원 : 김영미 (강사)  
김리라 (외부강사)
- 보조원 : 박시은 (외부강사)  
구아람 (외부강사)
- 자문위원 : 오현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안상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입법지원요원)  
정주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입법지원요원)

(요약문)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윤명자

##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외국인이 오고 가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사회 안정을 위하여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수행하는 연구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을 연구하려고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도 등 기본 개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사회적응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자료도 함께 조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필요한 FGI의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포함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현황조사,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FGI를 통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 효과를 살펴보고 하였고, 광진구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실시한 FGI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복수 연구자의 상호 검토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의 편향성을 갖지 않게 했다.

## II.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및 분석

###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먼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였기에 국내에서 관련 현황 및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선행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 2.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분석

다음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도 등 기본 개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사회적응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자료도 함께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필요한 FGI의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포함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 후, 최근 이민이나 국제결혼 등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함께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이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갑자기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더욱 생겨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결하였다.

그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이 되도록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Ⅲ.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 관련 내용 분석

#### 1. 한국어교육과 의사소통 능력

먼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자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과 사회적응도의 의미를 밝히고 나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와 관련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덧붙여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한국어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 향상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했다.

#### 2.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도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의 적응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있었다.

### Ⅳ.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검토 및 분석

#### 1.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분석

본 연구단체에서 주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0월부터 6주 동안 주 1회씩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였다.

#### 2. FGI 관련 내용 분석

교육 후 당해 센터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FGI를 실시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였던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 IV. 결론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로 후속 연구 및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수행한 연구로서, 국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이 오고 가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사회 안정을 위하여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이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현황 및 사례조사, 문헌 연구 등을 거친 후,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경험 등에 관한 FGI를 실시하여 한국어교육의 만족도와 함께 그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

###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 가.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관한 문제부터 연구대상의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검증이 필요할 것임을 인정하였고, 분석 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추후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높이는 초기 연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나. 제언

마지막으로 1) 결혼이주여성의 소통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2) 사회 구성원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 3) 향후 방향을 고려한 연구 등 강화 등을 제언한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II.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및 분석 .....	9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	9
2.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분석 .....	12
가. 다문화가족의 의의 .....	12
나.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및 중요성 .....	14
3. 소결 .....	17
III.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 관련 내용 분석 .....	18
1. 한국어교육과 의사소통 능력 .....	18
가. 의사소통 능력의 의의 .....	18
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조사 .....	19
2.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도 .....	26
가. 사회적응도의 의의 .....	26
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조사 .....	27
3. 소결 .....	36
IV.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검토 및 분석 .....	37
1.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분석 .....	37

가. 한국어교육의 세부 구성 .....	37
나. 관련 세부 내용 분석 .....	38
2. FGI 관련 내용 분석 .....	39
가. FGI의 세부 구성 .....	39
나. FGI의 세부 내용 분석 .....	41
3. 소결 .....	53
V. 결론 .....	64
1. 연구의 요약 .....	64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	66
〈참고문헌〉 .....	70



## 표 목차

〈표 1〉 FGI 조사의 장단점 .....	5
〈표 2〉 FGI 진행 절차 .....	6
〈표 3〉 연구 분석의 틀 .....	8
〈표 4〉 한국어교육 참여 명단 .....	38
〈표 5〉 FGI 질문지 .....	41
〈표 6〉 이중언어 교육 관련 FGI 참여자 명단 .....	44

## 그림 목차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1 .....	37
〈그림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2 .....	37
〈그림 3〉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실 .....	39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함과 함께 다문화 가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숫자는 2008년의 144,000명에서 2017년에는 330,000명으로, 십여 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행정안전부, 2008·2017). 또한 2015년 이래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의 규모 역시 매년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빠른 증가는 다문화 가구 자녀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즉,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국내 출생 외국인과 귀화자의 자녀 규모는 2017년을 기준으로 21만 2천 명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에서의 전체 출생 건수 중 5.5%가 다문화가족 출생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그리고 2011년 이후 외국인과의 혼인율은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다문화 혼인은 여전히 20,835건으로 전체 혼인의 7.9%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71.4%인 14,869건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라고 나왔다(여성가족부, 2018). 마지막으로 국적별 혼인율을 보면 2016년부터는 베트남 출신 외국 여성이 중국 출신을 앞서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베트남 출신 국적이 5,364건으로 36.1%이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통계청, 2017).

이처럼 국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이 외교·경제·문화적 목적 등으로 오고 가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이므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 증가에 발맞추어 국가적으로도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현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명분을 분명히 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문화가족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다문화 가구 증가,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적의 다양화, 거주기간 장기화 등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적실하게 변화하게끔 요청 받고 있다(김선숙 외, 2020).

##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수행하는 연구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이 남편 등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어 실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며, 더 나아가 우리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만약 결혼이주여성이 이주한 국가의 새로운 문화 및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감이 높아지거나, 생활 만족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우울감과 같은 증상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해서 임신 중에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부적절한 산전 관리, 영양결핍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임신과 출산, 나아가 양육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고 태어나는 2세의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우울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라기보다 적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 자원 및 사회적인 외적 지지와의 관계까지 폭넓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김선숙 외, 2020).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되는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그중에서도 2021년 10월부터 6주 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해진 한국어교육을 받은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FGI(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소수의 집단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결과를 살펴보고 하였고, 이처럼 한국어교육을 받은 10명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한국어 실력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연구 방법

### 1) 현황 및 사례 조사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이 어떠한지, 연구대상과 관련되는 연구사례는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 2) 문헌조사

다음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도 등 기본 개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사회적응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자료도 함께 조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필요한 FGI의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포함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찾아보았다. 해당 자료는 관련어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정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 참고문헌)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완하였다.

### 3) 한국어교육과 FGI 조사

#### 가) 한국어교육 실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0월부터 6주 동안 주 1회씩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였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분석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교육 후 당해 센터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FGI를 실시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였던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 나) FGI 조사

##### ① FGI(Focus Group Interview)<sup>1)</sup>의 의의

초점집단면접이라고 불리는 FGI는 연구의 관심인 어떠한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 혹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sup>2)</sup>된 질문을 하고, 해당 참여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토론하게 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김윤영 외, 2017). 이처럼 소수의 응답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사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는 FGI는 정성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의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② FGI의 특징과 장단점

이러한 FGI는 조사 진행자가 6~10명 내외의 조사 대상자들을 하나의 장소에 모아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해당 대상자들은 제시된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1) Fatemeh Rabiee(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및 How to prepare for a focus group interview (<https://trint.com/resources/ql8nx5kz/how-to-prepare-for-a-focus-group-interview>)

2) 아래 ② 특징과 장·단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된 질문이 아닌 추가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구조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내용에 관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Rabiee, 2004).

또한 조사 진행자는 대상자의 의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는 의견을 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과 주변 상황 데이터도 함께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FGI를 통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예상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양적 연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Rabiee, 2004).

하지만 6~10명 정도라는 소수의 대상자를 통해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FGI 방식의 특성상 대상 그룹의 구성, 진행자의 능력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Rabiee, 2004). 더 자세한 장단점 관련 내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FGI 조사의 장단점<sup>3)</sup>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면접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유용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함</li> <li>- 다른 사람의 의견 발표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발표함으로써 면접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음</li> <li>- 표적 집단의 동질성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참여한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편안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li> <li>- 진행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음</li> <li>- 조사 절차가 비체계적이므로, 결과의 분석도 어려움</li> <li>- 조사 결과가 어떤 특정집단의 의견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움</li> </ul>

### ③ FGI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FGI는 참여자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조사 참가

3) Fatemeh Rabiee(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참고

자들은 해당 주제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거나, 비슷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대화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abiee, 2004).

물론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가 인터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모를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Krueger(1994)는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토론에 온전히 참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 풍부한 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슷한 특성(예를 들어 연령, 성별, 인종 등)을 가진 참여자들로 그룹을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Kitzinger(1994)는 그룹 구성원 간에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는 경우에 상대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더 쉽고 자신의 의견도 더욱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abiee, 2004).

#### ④ FGI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FGI는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 총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정확한 시간은 해당 주제와 질문의 복잡한 정도, 질문의 수, 참여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Rabiee, 2004).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FGI 진행 절차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FGI 진행 절차4)

<b>조사기획</b>	- 조사목적을 확인하고 문제의 파악과 가설을 정립 - 조사방법을 결정하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 그룹 수 등을 결정하는 조사 디자인 실시
<b>가이드라인 작성</b>	- 담당 연구원이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여 참여자 자격조건을 결정하고 질문지 작성
<b>리쿠르팅</b>	- 관련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조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b>FGI 진행</b>	- 담당 연구원이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여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FGI 진행
<b>결과분석</b>	- 결과 분석보고서 및 제안 도출

4) FGI의 전반적인 이해(<https://slidesplayer.org/slide/16769715/>)



⑤ FGI 분석의 내용: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sup>5)</sup>

앞에서 밝힌 대로 FGI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의 인터뷰는 그 전체를 문서화 하는데 5~6시간이 걸리며, 이는 문서로 30~40페이지 분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Robson(1993)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의 중심 목표는 데이터를 줄이는 것이다(Rabiee, 2004).

또한 Krueger & Casey(2000)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은 연구의 의도로 돌아가서 시작되기에 연구의 목적에 관하여 명확한 고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의 과정은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진실 추구가 아닌,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abiee, 2004).

그리하여 Strauss & Corbin(1998)은 연구자와 데이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해당 데이터에 관한 주관적 선택과 해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Krueger & Casey(2000)는 포커스 그룹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체계적이고 순차적이며 검증이 가능하고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통해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연구의 엄격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Rabiee, 2004).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의 주요 대상은 언어적 의사 표현에 속하는 인터뷰 녹취록이지만, 참여한 그룹 구성원이 인터뷰 과정 중에 표현한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라는, 데이터 구성 및 분석에 귀중한 자료도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장해 둔 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따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거나 직접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따로 관찰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Rabiee, 2004).

이렇게 최종적으로 녹취 또는 관찰 메모한 각각의 내용을 핵심 내용별로 분류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그 발언에 대하여 해석 및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Rabiee, 2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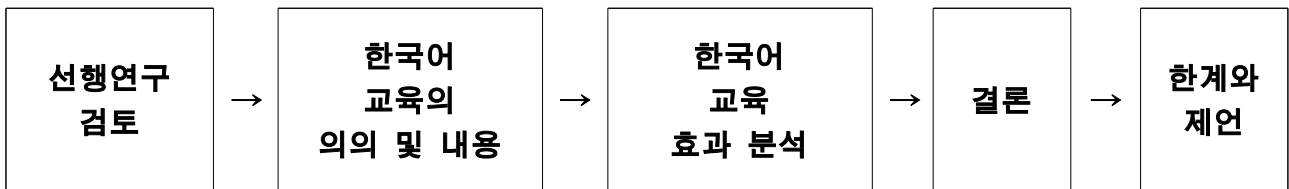
5) Fatemeh Rabiee(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 4) 연구의 타당도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수 연구자의 상호 검토와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고, 논문 및 연구 자료를 다양한 검색방식을 통해 반복 검색하여 연구자의 수동 검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방법론적 문제, 기타 오류나 해석의 문제가 없는지를 전 연구 과정에 걸쳐 여러 번 검토하고,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표 3〉 연구 분석의 틀



## II.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및 분석

### 1.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

먼저 본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과 관련이 있는 현황 및 연구사례가 국내에서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박명숙 외, 2020)’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적응기 결혼이주여성이 삶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다문화 실천인력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장애요인과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박명숙 외, 2020), 본 연구내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보였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209명의 결혼이주여성과 210명의 다문화 실천인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초기적응기 결혼이주여성 두 집단과 다문화 실천인력 두 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했다는 내용(박명숙 외, 2020) 역시 일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적응기 결혼이주여성이 삶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다문화실천인력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취업 및 경제, 학습 및 교육, 공동체 및 사회활동)과 보호 요인(취업 및 경제, 학습 및 교육, 공동체 및 사회활동)은 무엇인가?
- 다문화실천인력이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 요인은 어떠한가?
-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 및 보호 요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 집단과 다문화실천인력 집단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 참여자 선정(16명)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실천인력 네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행함

결혼이주여성(Group1)	결혼이주여성(Group2)	다문화 실천인력(Group1)	다문화 실천인력(Group1)
A(베트남, 34세)	A(네팔, 31세)	A(36세, 경력 3년)	A(48세, 경력 6년)
B(카자흐스탄, 38세)	B(일본, 38세)	B(37세, 경력 2년)	B(36세, 경력 3년)
C(네팔, 35세)	C(베트남, 37세)	C(34세, 경력 7년)	C(37세, 경력 5년)
D(필리핀, 35세)	D(베트남, 34세)	D(30세, 경력 2년)	D(58세, 경력 3년)

○ FGI는 209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함

- 한국으로 이주한 뒤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경험과 함께 문화적 민감성의 이슈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파악함
- 또한 다문화실천인력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행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장애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실천가의 이해와 인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봄

○ 연구자가 사전에 중심질문을 준비하여 이를 토대로 질문하되 인터뷰 진행 상황과 맥락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질문의 영역을 이동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반구조적 면접법을 활용함

- FGI 중심질문지

결혼 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과 구직활동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취업과 구직활동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경험(또는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li> <li>■ 취업과 구직활동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li> <li>■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학습 및 교육활동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및 교육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학습 및 교육활동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li> <li>■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및 사회 활동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li> <li>■ 공동체 및 사회 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공동체 및 사회 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li> </ul>
<b>다문화 실천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구직활동을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은 취업과 구직활동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는가?</li> <li>■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구직활동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이 학습 및 교육활동을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의 학습 및 교육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공동체 및 사회 활동 유형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공동체 및 사회 활동 유형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 및 사회 활동을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li> <li>■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및 사회 활동을 돕는 요인이나 환경은 무엇인가?</li> <li>■ 다문화 실천인력은 자신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li> </ul>

그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울시 서남권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현황, 그리고 개선의 방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서남권 다문화 교육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문화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추후 정책적 방향에 관한 탐색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참여자들의 심층적 토의를 통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통찰과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다문화시대 외국인주민 소통권 증진을 위한 탐색 연구’)도 있었으며,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FGI를 시행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에서의 맥락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 대상의 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층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연구(‘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있었다.

그 외에 국외의 현황 및 사례들은 각국에서 처한 상황에 따른 자국어 교육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삼기로 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 등을 통해 본 연구대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위주로 해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하였다.

## 2.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분석

### 가. 다문화가족의 의의

#### 1) 다문화가족의 개념<sup>6)</sup>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多文化家族)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뜻하는 용어로, ‘국제결혼 가족’이나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건강시민연대가 2003년부터 제안해 사용 되는 개념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이를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이러한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과 그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대두와도 같이 증가해왔다. 그래서 폭넓게 보자면 근대 이후, 즉 1950년의 6·25전쟁 이후에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부터, 1980년대의 산업화와 함께 외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19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 2010년대부터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 및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확산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혼인 적령기를 놓친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하면서도 주로 이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이뤄진 국제결혼은 4,710건이었는데 2005년에 403,12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결혼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

6)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2) 다문화가족의 중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상길·안지현, 2007; 이정석·이혜진, 2014; 박진경·원숙연, 2007).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을 의미하는 소극적 의미의 다문화주의’에서부터, ‘다문화 공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다문화주의’에 이르기까지 개념의 범위와 폭이 넓다(임동진·박진경, 2012). 이인희·황경아(2013)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네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을 뜻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치적·사회적·시민적 권리와 적극적인 정책적 실천으로 이행되는 단계이다. 다문화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인 이러한 마지막 단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주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조윤영 외, 2015).

이처럼 시민사회와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를 강조한 학자들은 아래처럼 다문화주의를 개념화하였다. Castles과 Miller(2009)는 다문화주의를 주류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기꺼이 수용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하였고, 박진경과 원숙연(2010)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합의된 실천적 이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Kymlicka(2003)가 제시한 국가 수준에서의 다문화주의 역시 평등한 권리를 위한 정책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먼저 언급된 정의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Kymricka가 강조한 다문화주의는 헌법, 제도, 법률이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 외국인 이민자들이 그 고유의 문화와 종교 및 언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도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정체성의 표현과 평등한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이동희, 2010), 상호적 소통과 교류, 공존을 지향한다. 특히,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소통권을 매개로 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의 평등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변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다수-소수 권력관계의 변화를 목표로 외국인 주민을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다(조윤영 외, 2015).

이처럼, 다수의 학자가 논의하고 정의한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다문화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 주민의 정치, 사회, 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

한 실천'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사회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화·인종적 차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참여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을 추구하는 사회이다(Inglis, 2009). 앞서 강조한 것처럼,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외국인 주민의 소통권 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실천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조운영 외, 2015). 왜냐하면, 이러한 소통권은 한 사회 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면서 보편적인 권리이자, 소통권이 보장되어야만 앞서 언급한 다문화주의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정치·사회·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정의철, 2014; 채영길, 2013). 그렇기에 외국인 주민의 소통권과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면,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조운영 외, 2015).

이처럼 최근 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에서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보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이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갑자기 적응해야 하는 힘든 과정과 어려움 등을 가진다(이지현 외, 2013). 그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더욱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2000년대 이후에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회 통합적 노력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고 상황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이기동 외, 2012).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주요 요인을 차지하는 여성인 결혼이민자,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등 때문에 관심이 더 필요하다.



## 나. 결혼이주여성 개념 및 문제의 중요성

###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국어사전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여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여성”을 뜻한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 모두를 가리킨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근본적으로 취업이나 학업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이기동 외, 2012).

또한 이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가정생활, 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 취업 등 한국 여성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상을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사실 보통의 한국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기동 외, 2012).

### 2) 결혼이주여성 문제의 중요성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월에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이 188,580명으로 89.2%라는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수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9년 149,853명, 2010년 161,999명, 2011년 188,580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세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더욱 크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2011).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로는 앞서 제시한 대로 결혼 후 가정생활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부모 부양 문제, 취업 등 경제적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결혼 후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 갈등은 주로 한국의 문화나 낯선 생활 환경,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 등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부부 간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김유경(2009)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발생률이 47.8%로, 해당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동 외, 2012).

사실 다양한 국적만큼이나 다른 문화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단일문화 국가인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문화충격, 향수병, 적대감, 차별감, 두려움, 죄책감과 기타 부정적인 감정(열등감, 불신, 사회적 고립 등)의 형태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예상보다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 전에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거나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언어 등 준비를 하지 않고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의 조사 내용에서 보면 이들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지만, 서투른 언어 구사력과 얇은 사회적 관계 때문에 모국과 다른 문화 또는 경제적 수준에 더욱 어렵게 적응해야 하므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숙, 2015).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국제결혼 가정이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2013)에 따르면 2013년 총 이혼 건수는 115,300건이고, 이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7,600건으로 전년에 대비해 3.7% 감소해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 역시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이 낮아졌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 예로 2009년 우리나라 총 이혼 건수 중 외국인 이혼은 11,692건으로 9.4%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대비해 3.9%만 증가한 반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8,300건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2%나 증가하여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남성의 이혼율 증가 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지현 외, 2013).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기에, 이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유추할 수 있다(김희숙, 2015).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국 전부터 경험이 가능한 한국어교육의 기회는 매우 적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학업이나 취업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그 목적에 따라 미리 한국어교육을 받았

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 등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에 바로 노출된다고 할 것이다.

### 3. 소결 :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구성은 중국(26%), 베트남(21%), 조선족(15%), 일본(12%), 러시아(7.5%), 태국(6.9%), 필리핀(5.8%) 및 몽골(5.2%)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멕시코, 카메룬 등으로 출신 국가 현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출신국은 안 그래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이로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모두가 상대 모국의 문화에 함께 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언어 소통문제까지 겹쳐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시도조차 어렵게 하는 상황에까지 부딪히게 만든다(김선숙 외, 2020).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서툰 한국어 능력은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부부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지현 외, 2013).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져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및 결혼 후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서 임신, 출산, 양육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2세의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배경과 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과 함께 사회적인 자원 및 지지 등 더욱 폭넓은 관계 속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이 되도록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Ⅲ.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 관련 내용 분석

#### 1. 한국어교육과 의사소통 능력

##### 가. 의사소통 능력의 의의

우리에게 의사소통<sup>7)</sup> 능력은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면서 일종의 경쟁력이다.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대인관계의 소통 방식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예상하며, 그 성향도 추측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도 인류가 얼마나 의사소통의 노련함을 갈망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상호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가 혼합되어 있고,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이 동시에 교류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소통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이 관계 형성이나 자존감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배양·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다(황태연, 2017).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실용적인 화법으로서 ‘관계적인 스피치 교육’이 필요함을 부각하는 연구도 있다(황태연, 2017). 이처럼 스피치에 대한 개념이 ‘상호소통’을 위한 개념으로 변화된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에는 특정 교육을 통하여 스피치를 할 때 불안감을 해결함으로써 그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불안감 역시 감소시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성공적이고 만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는 결과는 대인관계의 능력과 밀접한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편안함과도 연관되어 있고, 삶의 질에서도 중요한 요소임

7) 교육학 용어로 보면,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라고 할 것이다.

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수사학에서부터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노출하여 생각을 주고받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다(황태연, 2017).

이처럼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사람들이 상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경험의 공유로 서로를 더욱 이해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인 ‘말하는 능력’은 화자 내면의 세계를 적절히 표현해 인간 및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해줌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질일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다원화되고 개인화된 환경 속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요즘 사람들은 e-메일, 메시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하는데, 이는 간접적인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미경, 2010).

더욱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TV 등 기존 미디어 매체 외에도 위처럼 ‘비대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욱 간접적인 소통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결핍 등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간접적 소통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 등으로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서미경, 2010). 그래서 아무리 개인화 성향이 강해진 현대 사회라고 해도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 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조사

### 1) 관련 선행연구 조사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덧붙여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한국어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했다.

## 2)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

### 가) 일반적인 요인 분석 관련

① 결혼이주여성은 사회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적어서 기본적인 언어능력까지 부족하다면 남성과 비교해 문화 적응이 더 어렵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상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 등 준비 과정 없이 들어와 직면하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활 습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남편의 직업 등 경제적 곤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도 다른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불안 또는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언어능력'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숙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장애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그렇기에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 사회 적응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②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실 틈틈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이러한 선행 연구를 행하는 주체를 크게 지방자치단체, 학계, 결혼이주여성을 돕는 시민단체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석사 학위 논문을 위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와서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전문적인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박은주, 2009).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그들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르기에 이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반응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 이외의 요인 중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일본·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적응 수준을 비교 분석한 양순미(2006)의 연구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중국(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할 때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베트남·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김정미(2012)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이 중

국 출신(조선족 제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았지만, 일본 출신은 중국 출신보다 낮은 생활 만족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출신국과 이주국 간 언어 및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을 것이라 추정된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와 결혼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김경미, 2012; 신경자, 2010; 김연수, 2007)가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교육수준의 경우, 역시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 적응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한 연구(박능후·선남이, 2010; 김진희·박옥임, 2008)도 있으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거나(김한성·이유신, 2013; 김경미, 2012),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박은희·조인주, 2011)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장면선 외, 2009). 덧붙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동기를 묻는 조사(설동훈 외, 2006)에서는 가족의 생계유지 26.4%, 생활비 보충 24.6%, 자녀교육비 마련 17.1%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취업 활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승권(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데도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하는 이유가 월평균 가구소득보다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한성·이유신(2013)도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에서, 현재 한국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현재의 삶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김희숙, 2015).

- ③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가정이 겪고 있는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는 가정 내의 의사소통이나 한국어교육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국제결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와 그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최대 관심사 및 자신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을 고려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소통 전략 등에 관한 연구 역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이기동 외, 2012).

그 예로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책실행을 위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문제 제기 정도에 그쳤으며 대안을 실제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자고 논의한 연구도 있었으나, 이 역시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졌지만, 연구 방법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별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각 단원의 본문 내용에만 의사소통 기능을 국한하여 분류 및 분석하여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과 학습 요인 등을 고려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어휘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또한 학습 교재의 발전 방안을 모색 및 제안하면서 일일학습이라는 구성으로 교재의 실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초급 수준의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시안 검증을 실시한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요구분석 단계에서 그 대상이 초급 수준인 학습자로만 한정되었으며, 교재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교사 및 다문화가족과의 요구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시안 검증 과정에 참여한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기동 외, 2012).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 대부분은 ‘언어 소통’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언어 문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나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언어 소통의 한계로 자녀 교육, 부부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이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의 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국 문화에 관한 이해나 사회 적응력도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소홀히 여겼던 언어 소통 문제가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한국어교육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렇지만 지원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허점도 있었고, 이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다 해도 실제로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이기동 외, 2012).

#### 나) 구체적인 요인 분석 관련

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다룬 최근의 연구를 보면, 먼저 다문화가정 여성의 개인 변인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배경 변인 중에 국적, 자녀와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현, 2013)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한국사회 만족도와 부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있으며, 부부생활 만족도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향범, 2012)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순미(2010)의 연구에서는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가 낮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들의 사회적응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에서도 역시 다문화가정 여성이 당면하는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언어장벽과 의사소통을 지적해서, 가족 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대화 부족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역시 '의사소통 능력'이며,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과 남편의 아내 모국어 사용능력은 한국 사회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장정인 외, 2019).

②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출신 여성들은 언어적 유사성으로 의사소통에 비교적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역시 구하기도 쉽다. 따라서 한국 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큰 반면,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도 더욱 긴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과 언어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및 젠더 관계 등에서도 자신이 예전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한국인의 행동 등에 직면하면서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남편이나 시부모와 갈등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도, 언어와 음식 등 몇 가지에 대한 것 이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불균형은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간 의사소통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 문제로 답답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들 역시 답답해하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예상보다 더 심각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심각한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그저 서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만 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안 그래도 불안한 가족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물론 서로의 언어 및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고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나아지면서 그러한 심각성은 크게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송복희, 2008).

이렇듯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답답함과 소외감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커나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도 한국어를 습득하려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이들이 간단한 회화용 책부터 사전, 가능하다면 남편 등 가족의 도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의 능숙함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다양한 배움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새로운 문화에의 정착과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과 의사소통 능력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가족 및 사회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부 갈등과 학대 등 심각한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결혼이주 여성과 그 가족에게 한국어 능력은 생활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송복희, 2008).

- ③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예로 성상환 외(2011)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대부분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나임순(2008)은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의사소통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도 최운선(2007), 이은희(2009), 박능후·선남이(2010), 김진희·박옥임(2008), 김순규·이주재(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한국 사회 적응과 문화 적응, 생활 만족도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숙, 201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능력과 함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연구도 있다. 그렇기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라서 이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권복순(2009)은 한국어 능력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면, 우울과 설명변인의 관계인 자아존중감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령인(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희소하여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추가로 한국어 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김희숙, 2015).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검토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애(2006)는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며, 이때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잘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대화의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했다. 이는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언어 능력을 통한 취업 활동은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사를 연구한 신란희(2004)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일은 경제적인 성취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통로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실제적인 가정 내 권력을 형성해 가기 위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성적으로 불평등한 가족 구조 속에서 그 자신의 실존을 지탱해주는 실제적인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김희숙, 2015).

## 2.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도

### 가. 사회적응도의 의미

사회적응도라는 개념이 따로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 기간 및 가족 관계, 한국어 능력, 교통 여건 등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 등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선행연구(최성숙 외, 2012)에서 그 의미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를 ‘사회적응도’의 관점으로 폭넓게 파악하고자 했다.

다른 선행연구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윤희(2011)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인 관심, 인정 등을 뜻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정신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받거나 필요할 때 실제로 제공받은 도움까지 의미한다. 김새봄(2013)은 한국 사회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들의 배우자는 한국 사회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인에 속하는 남성이 많고 이들은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이주해 왔기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여성들이 많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적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지체계 속에서 여가 및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 동료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는 곧 사회적 자원이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김나영(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라는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 네 가지 지지 모두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인 차이를 유의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김은실(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게 인식되고, ‘사회적응도’ 역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순규(2010)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은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및

8) 사회적응의 개념은 3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한국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여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논의된 연구 중 간과할 수 없는 주제는 ‘사회적응’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그들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조사

### 1) 관련 선행연구 조사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과 관련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덧붙여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한국어교육으로 사회적응도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했다.

### 2)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

#### 가)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응도의 관계

- ① 예전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제결혼의 양상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결혼이주여성이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거부감 등 부정적인 정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은 양극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의 본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에 관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 역시 있기 때문이다(전수현, 2002). 사실 국제결혼의 현실이 교제를 통하여 상호 간의 애정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너무 짧은 교제기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게 되어서 이후 부부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소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은 대부분 결혼중매 회사를 통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한두 차례의 만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 등 문화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박재규·이운애, 2005). 특히 이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우리의 아내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며, 우리 농촌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곤란, 사회적 편견, 차별 대우,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낮다고 한다(채옥희·홍달아기, 2006). 이처럼 한국 생활에서 적응하려는 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차별대우, 타국생활에의 부적응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그동안 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 후에도 배우자 나라의 문화나 언어 습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가정생활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소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송복희, 2008).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공통적인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남편은 부인 나라의 문화나 언어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결혼이주여성인 부인에게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불만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 중 가장 으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할 것이다. 결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인내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장기간 일상적인 대화가 차단된다면, 결국 이것이 부부간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 형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폭력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상임(2004)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담한 결과, 남편이 한국의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 갈등을 느끼며, 언어적인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이 극단적인 갈등 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다(송복희, 2008).

- ②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 중에서 장지혜(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 또는 경제적 수준이 생활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김나영(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한국어 듣기 능력·읽기 능력·쓰기 능력이 각각 상(上)인 경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명희(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 사회에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한국어 말하기 수준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즉, 한국어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숙 외, 2020).

또한 2010년대의 연구 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정대용(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해 교육 경험이 생활 적응 과정에 미치는 의미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문해 교육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사회 활동 참여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등 이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박용자(2013)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이 한국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관계 적응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동료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뜻한다. 또한 신미애(2012)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언어, 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을 다루는 평생교육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이러한 교육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종철(2014)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착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 의무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형준(2017)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어 능력에서 '잘못함'보다 '잘함'의 경우가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통'보다 '잘함'과 '아주 잘함'의 경우가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 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인한 사회적 지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연(2005)은 한국어 숙달 수준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이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임순(2008) 역시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수준이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2010년대의 연구 결과도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조인영(2010)은 문화

충격,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모두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평균은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즉, 한국어 능력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충격이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진(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들이 능숙한 이들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알선회사 등 간접적인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 전에 한국어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부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이정희(2012)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결혼이주여성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역시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희숙(2015)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문화 적응 스트레스 경험을 가정생활과 취업생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취업 활동 여부에 따라 한국인 네트워크 구성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참여자들 중에서 취업한 이들은 의사소통이 거의 필요 없는 제조 공장 등에서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 직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 ③ 최근의 선행 연구(장정인 외, 2019)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낮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 적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친밀한 부부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결혼 후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며 가족 관계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또한 언어사용 능력을 아내의 언어사용 능력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는 문항의 내용으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으로 세분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응을 살펴보고자도 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에 따른 각각의 사회적응을 함께 알아보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평가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아내의 언어사용 능력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덧붙여 사회인구학



적인 변인에 따라 사회적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역시 결혼이주여성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추가로 김은실(2007)의 연구에서 사회관계 적응은 자조 모임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조 모임이 있는 경우에 사회관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관계 적응은 확대가족인 경우와 가족 소득이 높은 경우에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적응은 결혼이주여성인 부인의 나이가 30대인 경우, 부인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부인의 종교가 기독교 계통인 경우, 핵가족일 때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 관계 적응은 가족 소득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원(2018)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본 사회적 적응 차이의 분석 내용으로 거주 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無)학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승희(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응은 현지어 능력, 거주기간, 문화적 차이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송지현(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국적과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장정인 외, 2019).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사회적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언어사용 능력만을 알아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아내와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응까지 함께 알아보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역시 아내의 언어사용 능력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응 간의 영향까지 살펴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행하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평가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지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지지의 정도와 또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한국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장정인 외, 2019).

## 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의 관계

- ① 현재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 등 사회적응 교육내용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생활 적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성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연구한 사례가 부족하다고 한 연구도 있다(송복희, 2008).

농림부 보도 자료(2007)에 의하면 한국 농촌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문화 및 전통예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농촌에 잘 정착하려면 한국어 습득과 함께 한국문화 특히 가족 문화에 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문화적인 차이는 음식문화의 차이에서부터 부부 지위에 관한 태도, 자녀의 소속감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충남 여성정책 개발원(2003)의 연구에서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들이 겪는 문제점으로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생활 적응에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그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문화에 관한 이해 부족이다. 결국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및 관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가족과의 대화 또한 피하게 하여 스스로를 가족에게서 고립시켜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강복정(2006)은 국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폭력으로,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과 남편의 성관계 강요, 외부와의 강제적 차단,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음주 등 비행행위, 편견과 선입견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옥희·홍달아기(2006)는 베트남 여성에게 큰 문제로 느껴지는 내용은 자신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무조건 큰소리치는 것으로 들리는 남편의 대화방식 때문에 생기는 문화적인 갈등과 외로움,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 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했기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 중 으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며,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으로 생활습성이나 언어장벽 등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였다(이금연,

2003; 강유진, 1999). 예를 들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남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아내에게 “조용히 해!”하며 소리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명령조의 태도로 말한다거나,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데 너는 아이 기르고 살림이나 하라는 태도이다. 또한 위장결혼에 대한 가족의 우려가 결혼이주여성이 외부 활동을 하려는 것을 제약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외부적인 지원망 형성까지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이 이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내가 결혼 파기를 원하는 경우, 이들에게 결혼 비용을 다 갚으라고 요구한다.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로서는 너무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단일 민족이나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사회적 편견과 다른 문화에의 몰이해라는 태도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 여성을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여성 발전센터의 연구(2002)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를 통해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찾아보니, 문화적 이질감이 4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38%로 나타나 문화적 갈등이 한국 생활 적응에 더욱 어려운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금연(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유형은 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사법권민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어려움, 귀화시험의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기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등이라고 하였다(송복희, 2008).

- ②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국제 사회에서 신흥이주 수용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의 목표로서 세계화를 설정했던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약 10년 만에 국제 이주라는 물결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주의 여성화’는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 이주의 특징이다(이혜림, 2018).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에 38.8%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34.2%, 2014년 23.3%, 2016년 20.6%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혼인율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와 함께 연도별 다문화가정의 총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 6.1%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점점 증가하여 2011년에 11.5%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이혼율이 점점 감소하여 2014년에는 9.8%,

2016년에는 7.1%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응’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장정인 외, 2019).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며,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는 행정·복지·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서정원, 2017). 이런 면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응**’이란 ‘**개인의 내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외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불안감이나 좌절감이 없는 안녕감을 가지는 상태**’(김형태, 200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두 사회 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한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정인 외, 2019).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여성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은 체류 자격에 따른 불안정,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한국의 가부장적 인식과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 자녀 양육 문제 등이다(김미영, 2017). 그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 관한 조사를 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정보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활동 참여 부족,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도희, 2010). 이처럼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정인 외, 2019).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과 사회적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언어사용 능력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이는 곧 높은 결혼 만족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기영, 1996). 이는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남편 또한 아내를 더 이해하기 위해 아내 나라의 기본 생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사이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충분

히 교감이 이루어진 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선불리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이며, 정서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한 이후에 결혼이주여성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장정인 외, 2019).

그리고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사회관계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적 지지는 부부 및 가족 관계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관계 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평가적 지지를 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함과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의 요구와 정서적인 부분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평가적 지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끼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등 평가하는 태도나 행위에 해당되는 평가적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송경신, 2010). 이 연구에서도 평가적 지지가 상승할수록 사회관계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 옳고 그름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사회관계 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가족 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보적 지지’였는데, 사회적 지지 중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회나 방법 등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가족관계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응 전체와 가족 적응, 부부 적응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송경신(201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송경신(2010)의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충고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과 환경 간 상호관계 또는 상호적응에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을수록 부부·가족관계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수록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한국에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부부·가족관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낯선 땅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부부·가족관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서적 지지를 하려면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원하는 지지가 무엇인지 그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장정인 외, 2019).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언어사용 능력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장준희(2009)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므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결혼을 앞둔 외국 여성들이 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어교육을 받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통해 볼 때, 예측이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장정인 외, 2019).

### 3. 소결: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 향상 가능성 분석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라고 한다면, 이는 ‘각자의 다름과 차이에 가치를 부가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의존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UNESCO, 2008).

이처럼 한국 사회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국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한다.

## IV.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검토 및 분석

### 1.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분석

#### 가. 한국어교육의 세부 구성

정성적 연구로서 본 연구를 위해 앞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0월부터 6주 동안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였다.

아르바이트나 직장 등 참여자들의 시간 관계상 매일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었기에 1주일에 1회 교육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에서 다룬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정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이후에 나올 관련 세부 내용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1



〈그림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2



그리고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아래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0명의 여성으로, 교육 이후에 실시할 FGI 결과의 적정성을 위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으로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연령층에서 구성했다.

또한 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전 국적은 네팔, 베트남, 일본, 중국(가나다 순)이었다. 이는 서울시 또는 광진구라는 특정한 지역별 대표성을 가지고 추출한 구성은 아님을 밝힌다.

〈표 4〉 한국어교육 참여 명단

참여자	이름	국적	거주지	나이
A	제미향	중국	광진구	20대
B	고성란	중국	광진구	20대
C	라수미	네팔	광진구	20대
D	오현경	베트남	광진구	20대
E	쑤꼬	일본	광진구	20대
F	미에	일본	광진구	20대
G	나홍화	중국	광진구	20대
H	나원분	중국	광진구	30대
I	노마	일본	광진구	30대
J	토모꼬	일본	광진구	30대

#### 나. 관련 세부 내용 분석

1~6차까지 구성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 교재로는 착수보고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미리 검토 및 판단을 받은 ‘생활 속 한국문화 77’이라는 책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채택하였으며,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방식은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구체적인 한국어 익히기’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착수보고회에서 참여자의 국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실력에도 편차가 있다고 논의된 바에 따라, 참여자 별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려고 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기초 수준과 심화 수준으로 나누고, 1부 수업에는 10명이 모두 수업을 듣다가 2부 수업에는 수준별로 나누어 따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다.

그리고 지정한 교재로 수업을 주 1회로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위와 마찬가지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직접적인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충 수업을 진행하거나, 요리 등 실생활과 연관되는 주제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는 등 결혼이주여성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자리를 가지고자 하였다. 그 예로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보충 수업을 진행하여 서울시 의회가 어떤 곳인지 참



석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림 3〉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실



## 2. FGI 관련 내용 분석

### 가. FGI의 세부 구성

#### 1) 본 연구에서 FGI의 목적

앞에서 밝힌 대로 본 연구에서는 열 명이라는 소수의 응답자 간의 자연스럽게 심층적인 대화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였던 열 명의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한 선행연구(김윤영 외, 2017)에서처럼 참여자들이 한국어교육 및 한국에서의 적응이라는 연구의 대상과 관해 본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진술한 이야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FGI처럼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게 되면, 경험적 연구에서 먼저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것과 다르게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추구할 연구 질문이 그때마다 형성되고 도출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의 연구는 하나의 정책을 정책결정자나 설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게도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김윤영 외, 2017).

## 2) 본 연구에서 FGI의 세부 구성

따라서 해당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10명의 대상자를 책임 연구자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2021년 11월까지 6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결혼 후 한국어 능력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본인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현황과 실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효과까지 폭넓게 토의하기 위하여 마지막 교육 시간 이후에 두 시간여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다.

FGI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사회자를 맡은 연구자가 해당 연구의 개요와 집단면접의 목적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때 원한다면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한 센터 직원이 같이 참석하여 추가 통역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어서 참여자들이 간단하게 자신을 각자 소개하였으며, 그 후에 영역별로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서로 답하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들의 한국어 실력 정도와 함께 한국 사회에의 적응 상황을 함께 이해하면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세부적인 질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Krueger와 Casey(2009)가 제안한 형태를 참고하여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했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참여자들에게 아래처럼 미리 구성된 질문을 제시한 후에도 이들이 자유롭게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FGI 질문지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이에 따라 분석한 내용은 이후 FGI 세부 내용 분석에서 더 다루기로 하겠다.

〈표 5〉 FGI 질문지

구분	탐색영역	질문
도입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인식	-결혼 이주 후 경험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결혼 이주 후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주요 내용	한국어교육 참여 정도	-결혼 이주 전/후 한국어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결혼 이주 전/후 한국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해당 한국어교육은 실제 사회적응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
	해당 교육 (한국어교육) 효과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해당 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이 유용하였는가? -프로그램과 교재는 한국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차이를 좁히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마무리	향후 개선 제안 및 의견	-추가하여 어떤 수업을 받고 싶은가? -사회적응을 돕는 요인, 환경, 방법은 무엇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수업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나. FGI의 세부 내용 분석

1) FGI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 검토

① 김희숙(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질적 연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까지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출신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들이 가정생활에서와 취업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각 지표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인식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변화가 생겼을 때 이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떠한지를 설명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

웠다고 판단했다. 만약 한국어 사용의 능숙함과 미숙함의 수준이라는 내용을 양적 연구에서라면 한국어 능력과의 그 상관관계를 따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하는 경험이라서 통계나 수량화가 아닌 적절한 언어로 표현되는 질적 연구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김희숙, 2015).

- ②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교육 과정 동안 지속해서 관찰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가정생활상의 특성 및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의사소통 및 문화상의 갈등을 파악한 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통합교육서비스’의 효과를 점검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통합교육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통합교육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고 건강한 가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송복희, 2008).

현재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 등 사회적응 교육내용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연구한 사례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정생활 상의 문제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초급반교재와 가정생활 교육내용을 맞추어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기대와 효과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송복희, 2008).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기간 동안 관찰하고 나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시도했다. 그리고 연구자료 획득과정에 있어서는 통계적 대표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사례 별 관찰 방식을 택하였다.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사실 200여 명 정도가 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15명의 결혼이주여성만 대상으로 하여 1년간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횡적 연구를 시도했다. 이들은 동일한 연구자에게 한 반에서 수업을 함께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이었고, 이 기간에 연구자가 매주 2회씩 3시간에 걸쳐 300여 시간 동안 한국어와 가정생활 및 문화 적응 교육을 병행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익산시 결

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자 중 15명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음의 두 가지 조건(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면서, 동일한 면 소재지에 거주)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15명 중 베트남 출신 여성이 13명(86%), 중국 출신 여성 1명(7%), 몽골 여성 출신 1명(7%)으로 베트남 출신 여성이 가장 많았다. 입국 연월은 2004년 5명, 2005년 4명, 2006년 6명으로, 3년 동안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송복희, 2008).

- ③ 그리고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FGI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한 연구(홍종명, 2012)가 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언어적 노력과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즉 이중언어의 사용과 그 교육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고,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언어 사용 양상의 특징이다. 이때 이중언어 능력이란 ‘두 개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능력’을 뜻하기에, 이중언어 능력은 두 언어의 완벽한 숙달 정도를 전제로 하는 최대론의 관점과 제2 언어로 최소한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최소론의 관점 등 그 개념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 그러나 모국어 이외의 사용 가능한 다른 언어 능력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Baker, 2007). 즉,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이외에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이중언어 습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 모국어 교육, 즉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 하나를 더 습득함으로써 현실적인 혜택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이중언어 교육과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그리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홍종명, 2012). 또한 부모의 모국어가 지니는 언어 자본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해당 목표언어 능력이 취학이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 학업 수행과 취업 등 사회 활동의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정해숙 외, 2013).

그런데 이처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지 그 현황부터 살펴보고,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강사들의 학교 내 역할과 업무를 분석하고, 그 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은 각 지역에서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으므로, 강사의 업무 현황 분석은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실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강사의 현재 문제점들을 제도적 층위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추후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앞서 밝혔는데, 먼저 기초 조사로서 이중언어 강사 업무에 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들의 학교 내 역할과 업무를 분석하고 담당 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인터뷰 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차적인 설문조사 이후 이중언어 교육의 현황에 관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 6>처럼 이 초점집단인터뷰에는 이중언어 강사 선발 배치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선 학교 다문화업무 담당 교사,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이중언어 강사 등 모두 9명이 참여하였다(홍종명, 2017).

<표 6> 이중언어 교육 관련 FGI 참여자 명단

분야	참여자	근무지역	관련 경력
시도교육청	A 교육청 장학사	수도권	2년
	B 교육청 주무관	중부지역	1년 6개월
	C 교육청 장학사	남부지역	2년
일선 학교	D 초등학교	서울	2년
	E 다문화 대안학교	서울	5년
	F 초등학교	경기	3년
이중언어강사	중국어 G	서울	6년
	중국어 H	경기	5년
	일본어 I	서울	6년

이를 통해 이중언어강사의 실제 수행 업무와 역할(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중언어 교육, 강사의 의도되지 않은 다양한 역할 수행), 이중언어강사 양성의 제도적 한

계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은 현재 그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과는 다르게, 언어교육 시행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종명, 2017).

#### 나) FGI 시행 관련 내용 검토

- ① 이번 선행연구(김윤영 외, 2012)에서 시행한 FGI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역인 인천시 부평구, 남구, 남동구와 부산시 해운대구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아동 대상 바우처 집행과정의 행위자인 이용자와 제공자라는 두 축 중 하나인 제공자로서 경험을 이야기해 줄, 다른 기관의 담당자들로 연구진을 각각 구성하였다. 따라서 인터뷰의 질문은 Krueger와 Casey(2009)가 제안한 형태를 참고하여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했고,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참여자에게 제시한 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FGI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사회자인 연구자가 연구의 개요와 함께 집단면접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 참여자들이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곧바로 주제 별로 해당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서로 답하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자인 연구자는 각 주제에 맞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집단면접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한편, 정보 제공자인 참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며 적절히 토론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시하고 토론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FGI 1회 당 참여자를 5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인천과 부산 지역의 민간 제공기관 담당자 5인씩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2시간 반 정도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취된 면접 내용은 전사한 후 개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공급자의 준비 및 태도와 관한 주제, 두 번째,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도식에 대한 공급자 대응 및 평가에 대한 주제, 세 번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에 관한 주제,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에 관한 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주제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까지 포함하였다(김윤영 외, 2012).

이를 통해 첫 번째, 공급자의 준비 및 태도에 관한 주제, 두 번째,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도식에 관한 공급자 대응 및 평가에 관한 주제, 세 번째, 이용자의 행태에 관한 공급자의 의식과 관련된 주제, 네 번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관한 자체 평가 및 제언에 관한 주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주제에 따라서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까지도 포함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가 이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인식에 관한 탐색 결과에 따라 도출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러한 이용자들이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선택 도식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바우처 서비스의 종류, 시간, 급여량 및 제공 기관까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탐색 주제가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통합 바우처 사업 기간 중 이용자들이 보인 행태 변화와 이에 관하여 제공기관 공급자들이 실제 느낀 경험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한 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통합 바우처 제공 경험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의견들을 가지고 구성되었다(김윤영 외, 2012).

더 나아가 연구의 한계 부분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인천과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 한 번의 시범사업으로 분석의 자료가 국한되었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는 지역 간 특성이나 경험적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에 전국 단위의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가로 시행된다면, 해당 연구의 결과는 재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공급자 중심의 자료만 가지고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사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하나의 축에 관해서만 해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연구진은 통합 바우처 이용자의 경험이라는 또 하나의 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급자 측면과의 비교 논의를 통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김윤영 외, 2012).

- ② 또 다른 연구(김희숙, 2015)에서 연구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결혼 전 국적 또는 결혼 전과 같이 국적이 베트남 출신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결혼하여 한국에서 체류한 지 1년 이상 지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자가 그 대상자의 기준을 혼인하고 한국에서 체류한 지 1년 이상 넘은 이주여성으로 선정한 데에는 적어도 체류 후 1년 이상 지나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살면서 경험한 사회적 자본이나 심리적 요소 등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인터뷰에서 본인의 경험 등을 충분히 말해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인 및 체류 기간이 짧은 결혼이주성과 예전에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부정확한 응답 때문에 해당 연구에는 적절



한 대상자가 되어주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참여자들의 한국 체류 기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0년으로 잡았다. 세 번째, 인터뷰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총 10명으로, 4개의 집단군(한국어 능숙함과 취업 활동 유(有) 집단, 한국어 능숙함과 취업 활동 무(無) 집단, 한국어 미숙함과 취업 활동 유(有) 집단, 한국어 미숙함과 취업 활동 무(無) 집단)으로 분류하여 참여자를 선정했다. 사실 참여자를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어 능력 수준과 취업 활동 여부 구성에 맞는 참여자를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평일에 만나기 어려웠고, 주말에는 가사 일이나 참여자의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역시 만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질문지를 일차적으로 구성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와 1:1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이용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이미 연구에 참여했던 결혼이주여성이 주변 사람들을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취업 활동 여부로 형성되는 사회연결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관해 탐색하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김희숙, 2015).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로서 우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와 진행하게 될 인터뷰 주제와 방향을 설정해서 먼저 질문지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질문지의 활용이 적절한지는 미리 전문가의 첨삭지도를 받아 분석 및 검토했으며, 참여 대상자와 연습 면담도 진행하였다. 그 후에 열 명의 참여자와 1:1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총 기간은 7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인터뷰 결과의 사용 계획,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 3년간 자료 보관 후 폐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따로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모두 녹취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별로 면담을 1~2회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참여 대상자들 중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 해당 언어의 통역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현장 노트, 참여자와의 전화 통화, 문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 역시 참고하여 주제를 만들고, 의미와 주제에 따른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하였다(김희숙, 2015).

- ③ 마지막으로 살펴 볼 연구는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추후 정책적 방향에 관한 탐색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현장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FGI의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어떠한 참여자 그룹에서 표본을 선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배은석·송영지·박병현, 2012; Margan, 1998), 해당 연구의 목적은 특정 연구주제에 관하여 참여자의 심층적 토의를 통해서 이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한 것이기에 가장 생산적으로 토의를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FGI의 구성에서 참여자의 적합성 여부는 동질성과 분할이라는 개념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 참여자들 간에 동질성이 확보된다면 그룹 내 역동성의 원활함이 보장될 수 있으며, 서로 견해가 다른 참여자들로 구성된다면 인터뷰 내용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배은석 외, 2012; Morgan and Scannell, 1998).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일차로 행정, 정책, 교육, 홍보 영역 및 시민단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 중에서 해당 FGI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렇게 모집된 참여자들을 공공과 민간 기관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전부 8명의 외국인 주민 관련 전문가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외국인 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시 산하기관 직원까지 공공 영역 부문의 참여자로 분류되었고, 민간 영역으로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NGO단체 활동가, 민간 홍보 대행사에서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전문가, 그리고 지역 대학의 국제교류처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두 명이 참여하였다(조윤용 외, 2015).

그리고 FGI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소통권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일 기본적인 지원인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그 정보에의 접근성, 그리고 이러한 소통권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문화에 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FGI의 주제를 이 네 가지 분야로 한정된 후 반구조화된 FGI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응답을 하도록 설문 문항은 참고는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했다(조운용 외, 2015).

그 후에 진행된 FGI는 2014년 6월 11일(수), 연구진이 마련한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간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해당 연구진에서 구성된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는 참여자들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하였다. 특히 참여자 중 일부만이 발표 시간을 독점하거나 그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녹취 과정에서부터 녹취의 의도를 먼저 밝히고 비밀 보장에 관해 공지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진행자들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압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렇게 녹음된 FGI의 내용을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1차 녹취록으로 작성되었으며, FGI의 주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차례로 녹취록을 읽어가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 녹취록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러한 텍스트 형태의 녹취록을 Nvivo10을 사용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오픈코딩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텍스트화 되어 있는 자료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념을 추출한 후 코딩하여,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노드(node)를 소주제별로 범주를 형성하는 부호화 작업을 하고, 2단계로 소주제를 같은 아이디어 단위로 상위 범주로 묶어 나가는 방법이다(박종원, 2012; 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이렇게 하면 수많은 하위 범주 위에 상위 범주로 가면서 그 범주의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며, 결국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됨을 알 수 있다(박종원, 2012). 또한 연구진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코딩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동 작업 중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는 논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했다(조운용 외, 2015).

## 2) FGI 세부 내용(1) : 한국어교육의 만족도 파악 가) 한국어교육으로 인한 성과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FGI에서 한국어교육의 만족도에 관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이번 교육 이외의 시간에 비정기적이더라도 종종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프로그램 일정 등을 알아보려고 연락하는 등 해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이 유용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나온 해당 교육을 진행한 강사와 교육 시행 시간 등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업을 들었던 참여자들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교재로 진행되는 수업 이외에 보충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내용이 좋았으며, 다른 참여자보다 한국어 능력이 취약했던 참여자는 모처럼 유익했던 수업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6회)보다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답이 이어졌다.

#### 나) 한국어교육 개선방안 내용

위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수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와 ‘프로그램과 교재는 한국 생활에서 소통의 차이를 좁히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들의 답이 나왔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열 명의 수강생 중 본인의 가정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강사 역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했기에 발음과 입 모양이 중요한 수업에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교재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나, 다른 센터에서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들이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한 참여자의 발언에 현재 한국인 강사들과 비교할 때 실제성이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보조 강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왔다. 그래야 한국어 능력이 다른 이들보다 떨어지는 참여자의 경우에 모국어를 활용하여 해당 교재를 더욱 확실하게 지도받을 수 있기에 한국 생활에서의 소통의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추가되었다.

### 3) 구체적 내용 (2) :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가능성 분석

#### 가) 한국어교육으로 인한 성과

‘결혼 이후 후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참여자들은 이 교육으로 한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나아져 가족과 주변 이웃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욱 편해졌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결혼 이후 후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꼽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솔직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주장’(서미경, 2010)을 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답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렇듯 자기주장을 통하여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결혼이주여성인 자신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을 신뢰해 달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 이후 전/후 한국어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와 ‘결혼 이후 전/후 한국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유용한 내용은 교육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유용했던 교육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결혼 이후 전에는 한국어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던 참여자의 경우에는 이번 교육으로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시원했다고도 답했다. 또한 요리 강좌 형식으로 만들었던 유튜브 촬영(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런 방법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배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 나) 한국어교육 개선방안 내용

위와 같은 성과만큼 여러 명의 참여자가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내용은 더욱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결혼 전에 받았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아쉬웠던 점처럼 생각보다 교육 시간이 빨리 흘러 아쉬웠다고 답한 참여자도 있었고, 해당 교재를 6주 동안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게끔 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추가하여 어떤 수업을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해당 교육이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문화, 역사 등과 함께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는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답도 나왔다.

이러한 답변 결과에 근거하여 광진구 주민으로 오래 생활할 결혼이주여성에게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구체적 내용 (3) : 사회적응도 향상 가능성 분석

##### 가) 한국어교육으로 인한 성과

‘주변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가?’와 ‘해당 한국어교육은 실제 사회적응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 ‘사회적응을 돕는 요인, 환경,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많은 참여자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했는데, 오히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주며 더욱 응원해주는 분위기여서 놀랐다고 답하는 참여자가 있었고, 여기에서 요리 실습 교육까지 받았으니 컴퓨터 교육이나 자녀 지도 방법 교육도 함께 받는다면 사회적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그동안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부부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광진구나 서울시 등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나) 한국어교육 개선방안 내용

사실 이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수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변의 편견이나 차별대우, 타국 생활에

의 부적응 등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 일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다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 및 고부갈등을 포함한 가족 관계 문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 가정경제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심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을 걱정하는 행동 역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초기과정에서 멈춰버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버리면, 대부분 잘못 습득해버린 언어표현이 많아져 쉽게 고쳐지지 않기도 한다. 게다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므로 나중에 표준어와 사투리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심히 한국어교육을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일기를 쓸 수 있었으며, 하반기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 한국어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올라간다.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 한국어 및 가정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가정생활 교육을 동시에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빨리 습득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가정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함께 가정생활 교육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송복희, 2008).

### 3. 소결 :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

#### 가. 구체적인 방안 모색 (1)

서로 다른 문화 간 충돌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일찍이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미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현상들의 본질은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인종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화 간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 언어적 소통, 편견의 배제 및 이해로 요약할 수 있다(송복희, 2008).

사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본인의 고국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낯선 한국으로 희망이라는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에 부딪혀 한국 사회와 가정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이들은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과 함께 한국에 이주한 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각자 흩어져서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 등의 짐을 한꺼번에 맡아 버리기에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통과 혼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빨리 익히게 할 목적으로 모국어의 사용을 주변(특히 남편이나 시부모 위주)에서 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송복희, 2008).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충분한 이해나 습득이 부족한 상태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한국어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가정생활 적응에 필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차적인 사회집단인 가정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인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가족 간의 갈등까지 불러 일으켜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는 사회로 나아가는 입장권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회생활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2세인 자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송복희, 2008)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사회성은 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호주의 이론에서는 언어 경험을 적절하게 유아에게 제공해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에 결정적 시기에 언어적인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언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사실상 학업진도도 따라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2세인 자녀의 사회성 형성 및 학업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언어는 결혼이주여성이 배우고 익혀야 할 한 나라의 문화인 동시에 이들의 생존 수단이 되기에, 한국어교육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송복희, 2008).



특히 한국 농촌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며, 한국 자녀의 어머니가 되며,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농촌을 가꾸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소통의 부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사회의 선입견 또는 편견,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 남편의 폭력, 시부모의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응력이 낮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부부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교육, 가족지원 서비스, 보육 서비스, 문화적 갈등 해소 및 사회적응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은 한국어교육 그 자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함께 모국과는 다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라는 다원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송복희, 2008).

또한 앞서 제시한 많은 연구나 실천 경향을 볼 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 문화로 본인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한국어 및 가정생활 문화교육까지 함께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인 내적으로는 자아존중감 문제와 외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 및 사회적응의 문제 등 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이 떠안고 있는 한국 가정생활에서의 적응 과정은 개인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들 보다는 개인적·사회적 노력으로 그 원인을 조절해서 적응 과정이 건강하게 촉진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응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 가족, 사회관계에서 갈등 및 문제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응해 가는 능력을 뜻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적인 소외감 및 사회, 가정생활에서의 문화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송복희, 2008).

#### 나. 구체적인 방안 모색 (2)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해당 사례 조사는 예비 면접 조사와 설문 조사, 심층 면접 조사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네 가지로 드

러났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 교사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교육 내용을 개선한다. 세 번째, 한국어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 네 번째, 한국어교육 현장과 중앙 행정기관 간 소통 체계를 개선한다. 이러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관련 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 역시 필요하다(이기동 외, 2012).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적 지지의 중요성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관계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평가자로서의 역할보다 긍정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장정인 외, 2019).

#### 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 (3)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한국어 능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만일 정말 스트레스 수준 차이가 있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정생활과 취업활동을 중심으로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고자 했다. 사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 후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화 적응 문제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은진, 2007).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겪는 언어, 문화, 정체성 혼란 등의 정신적·심리적 불안감은 적게는 그 한 명의 개인적인 혼란이지만, 더 나아가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역할에 따라 가족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과 취업 활동 안에서 생겨나는 사회연결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희숙, 2015).

뒤이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나임순(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의사소통이 쉽기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 해줄 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다. 사실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 집단 모두 각기 다른 종류로서 스트레스가 있었다. 먼저 통역 없이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 문제와 직장생활을 할 때 본인의 부정확한 발음, 적절하지 않은 단어 사용 및 표현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특히, 직장에서 ‘한국 사람처럼 해야 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업무에 매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보다 더 심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 사용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의사소통인데, 이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언어 문제는 이들의 가족 관계와 가족 내 이들의 위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길 요하는 직업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대체로 한국어 사용을 적게 하는, 몸이 고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그런 직종만을 찾는 등 각각 직업군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희숙, 2015).

또한 사회연결망이라는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긴지 짧은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였으며, 한국어 능력 수준과 취업 활동 여부에 따라 한국인 네트워크 측면에는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에 따라서 차이를 약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자는 이들의 사회연결망에서 특이한 세 가지 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이들의 한국인 네트워크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한국인 직원도 있었으나 그 외에는 남편을 통한 연결망 즉, 남편의 친구 또는 남편 친구의 부인이거나 국적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변경한 귀화자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참여자 대부분이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한국인 네트워크는 너무 적었거나 아예 없었고, 참여자 10명 모두에게 한국인들과의 지역 모임 역시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연결망은 가족의 수보다는 그 연결망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가, 또는 작용하지 않는가 여부가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 연결망 내에 시부모님의 연결망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남아선호사상 문제, 남녀차별 문제와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이처럼 베트남 문화와 다른 내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은 한건수(2006)의 연구에서 시부모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희숙, 2015).

또한 연구 참여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집안일을 할 때에는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잘 할 수 있기에 그 경우에 자아존중감은 높았지만,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 스스로가 본인에게 더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발현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게 기대만 해서, 미래의 본인 모습 정도만을 그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아지고, 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 이들의 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김희숙, 2015).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어 능력과도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최운선(2007)이 진행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위집단이 중하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차별 현상에 관한 인식 정도도 함께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한국인과의 동등한 경쟁에서 오는 승진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고, 비전문직 종사하는 참여자는 한국어 능력수준이 낮기 때문에 차별이나 무시가 있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행동, 눈빛 등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희숙,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또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어서 자녀와 연결되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은 문화 적응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가족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세 번째,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능숙한 한국어 구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더 쉽고 풍부하게 알 수 있는 활동은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활동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 아닌 한국의 구성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김희숙, 2015).

#### 라. 구체적인 방안 모색 (4)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교재 내용 구성에 관해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교재에 수록된 담화 장면이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았다. 또한 한국인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법이나 표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단적으로 지적한 교재의 단원 제목인 ‘남편은 무엇을 해요?’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 언어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남편은 무슨 일(을) 해요?’ 또는 ‘남편 직업이 뭐예요?’라는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다.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과 괴리를 보이는 교재 내용은 학습자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교육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이기동 외, 2012).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도 더 다양하고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 문화 내용이 각 단원과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교재의 경우, 언어 편(20 단원)과 문화 편(5단원)으로 각각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이보다는 언어 편의 각 단원과 이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함께 묶어 제시하는 것이 한국어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며, 한국 문화의 내용을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이기동 외, 2012).

그리고 한국어교육 대상자 선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한국어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서 한국어교육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동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이러한 지원에 관한 정보

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선정 방식으로는 교육 지원이 실질적으로 더욱 필요한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방문 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더 대상자의 여러 조건이 무시된 채 방문 접근성이나 교육의 용이성이란 내용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정 방식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욱 고립하게 만든다. 또한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교육 기회의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위화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대상자의 자격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기동 외, 2012).

#### 마. 구체적인 방안 모색 (5)

마지막으로 조윤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범주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자원의 부족'이라는 범주는 경제적 자원인 예산을 비롯하여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공간 문제, 공간에의 접근성 문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나 통·번역가의 시급 등 봉급 문제, 봉급에 따른 스케줄 문제, 그리고 거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이지 못한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에 관한 문제 등이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항이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와 그 공간으로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였다. 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즉 외국인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민 센터 공간을 쓰려고 제안을 했는데,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지하철 역사에서 운영했습니다. 공간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민간A).”*

또한 자원의 부족 범주의 하위범주로서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예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를 자원봉사자에 의지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교육 강사들의 동기 부여에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

로 이러한 서비스의 질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조운용 외, 2015).

“한국어교육 강사의 체계적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pay를 일정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 주고, 자발적으로 강의를 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봉사에만 기대를 한다면 체계화 한다는 것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공공B).”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의 하위 범주로 정책 홍보, 즉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 정책 등을 알리지 못하고 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홍보 인력과 체계의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조운용 외, 2015).

“홍보 담당 내부인력이 있으면 최선이죠. 다문화가정의 대표분을 소통과 홍보를 위해 정기적 미팅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소통하는 홍보의 체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민간B).”

그리고 이 연구에서 두 번째 범주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부족이다. 이에 관한 하위범주로 선(先)주민의 이주민에 관한 고정관념과 차별, 그리고 한국어교육 강사의 다문화에 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에 관한 인식 부족은 결국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조운용 외, 2015).

“국제화라고는 하는데 시민의 마인드가 안 되다 보니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서 편하게 살려면 자연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분들도 결국 외국인들이 아니고 그냥 주민입니다(공공B).”

그리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인터뷰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초급이 아닌 고급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어교육 공간으로의 접근성, 시간적·공간적 제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확보하거나 코로나 상황 등에 발맞추어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조운용 외, 2015).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급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급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나 지자체 시책으로 봐서도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C).”

이러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어 교원양성프로그램의 이수자들이 경력을 쌓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조운용 외, 2015).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력을 쌓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B).”

외국인 주민들과의 공공소통 활성화 방안이라는 마지막 대안으로는, 선(先)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문화다양성 향상’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무원, 한국어교육 담당자, 통·번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에 관한 이해와 외국인 주민에 관한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조운용 외, 2015).

“대학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양성과정에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 감수성 같은 이런 인권교육도 합쳐서 교육과정에 넣어달라는 요청은 시에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관련되어 협의를 하거나 제도가 만들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민간A).”

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외국인 주민의 공공소통의 향상과 이들의 소통권 증진을 위하여 궁극적인 해결책은 부산시민이 먼저 외국인 주민에 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고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융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외국인 주민도 선(先)주민과 다르지 않은 부산시민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조운용 외, 2015).

“부산시가 이름만 국제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여러 가지 시스템 마인드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살기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식의 홍보보다는 이런 식의 인식 전환 홍보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민간A).”



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한 마지막 방안은 외국인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고국 문화 행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이 모국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先)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그 문화를 공유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행사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 행사의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조운용 외, 2015).

*“각 나라의 공식적인 커뮤니티의 행사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커뮤니티들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나라의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이주민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공공B).”*

## V. 결론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로 후속 연구 및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수행한 연구로서, 국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이 오고 가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사회 안정을 위하여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이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현황 및 사례조사, 문헌 연구 등을 거친 후,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경험 등에 관한 FGI를 실시하여 한국어교육의 만족도와 함께 그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관련 현황 및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선행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도 등 기본 개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사회적응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자료도 함께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필요한 FGI의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포함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다문화가족지원법)한 후, 최근 이민이나 국제결혼

등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함께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이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갑자기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더욱 생겨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배경과 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과 함께 사회적인 자원 및 지지 등 더욱 폭넓은 관계 속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이 되도록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응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자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과 사회적응도의 의의를 밝히고 나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와 관련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덧붙여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한국어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 향상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의 적응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인한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얻은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단체에서 주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0월부터 6주 동안 주 1회씩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 후 당해 센터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FGI를 실시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였던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소수의 응답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설문

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FGI는 일종의 정성적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국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연구, 한국어교육 내용, FGI 결과 분석 등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방안 도출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후속 연구 및 결과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제언을 하고자 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 가. 연구의 한계

#### 1) 연구대상에 관한 문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환경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도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에 관해 보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응 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기에,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더욱 직접적인 사회적응과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장정인 외, 2019).

#### 2) 연구 집단의 대표성 문제

해당 연구는 FGI를 활용하였지만, 그럼으로써 연구 집단의 표본이 전체 결혼

이주여성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 설계의 구조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참여 중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령 별, 사회경제적 상황 별, 거주지 별로 고른 분포를 가지고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 수준과 취업 활동 여부에 따라 참여자를 확보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평일에 만나기 어려웠고, 주말에는 가사일이나 개인 용무로 한 번에 모두 만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FGI 방법은 정성적 조사에 유용하며, 소수의 응답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황에 적용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지더라도 해당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 교육자를 선발해 FGI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차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 광진구 외의 다른 지역에,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원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분석 자료의 한계

광진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려는 방식으로 분석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광진구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해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간 혹은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지 못할 것이며, 교육 전/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교육 후의 대상자의 효능감 등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일반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위 연구는 광진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교육과 실험설계를 하여 진행한다면 그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연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만큼 추가 연구가 예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나. 제언

### 1) 결혼이주여성의 소통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다양한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세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의 언어 및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문화 등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교육 이외에도 한국어교육 교사와 중앙 행정기관 간 소통 역시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한국어 교사와 중앙 행정기관 사이의 소통은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주로 관련 시설이나 교사들의 업무 내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한국어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교육 사업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중앙 행정기관의 의지와 소통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이기동 외, 2012).

### 2) 사회 구성원과 거버넌스 시스템 필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화 등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이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한 소통 능력을 높이고 가정생활 및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 역시 이들과 느슨한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제도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전에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제도를 수립하고 지원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집행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운 점과 필요한 점에 대해 나누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향후 방향을 고려한 연구 등 강화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광진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차별화된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연구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나이 별, 교육 경험 별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구성해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지역별, 교육 참여 동기별 등 더욱 세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연구의 한계 부분에서 밝힌 대로 지역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본 결혼이주여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향후 상황과 방향에 맞춰서 더욱 실용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박경호, 「재미있는 행정학」, (주)WILLBES, 2016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2

### ■ 연구논문

김선숙 외(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3호(2020)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59-78

김윤영 외(2017),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제공 경험에 관한 민간 공급자 FGI 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358-388

김희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가정생활과 취업활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명숙·송사리(2020),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실천인력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32집 4호, pp.190~231, 한국가족학회

박은주(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미경(2010),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화법연구, 17.

심인선(2007),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0 No.4

우지은(2019), 성인학습자들의 스피치교육 경험 분석: 전환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이기동·안병섭·박대아 (2012).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실. 한국학연구, 41, 63-8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상헌·박경민·손순영(2021),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4호, 457-466

이애련(201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



족자원경영학회지, Vol.14 No.4

- 이지현·진수진·주현정·조연실(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87-98
- 조운용·이혜진·황성욱(2015), 다문화시대 외국인주민 소통권 증진을 위한 탐색 연구 -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533-555, 한국지방정부학회
- 정은이·이상호(2019),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비즈니스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42(3).
- 채옥희·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10 No.3
- 최성숙·윤현경·최규일 (2012). 다문화 가정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도가 의료기관 이용과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2), 5875-5881, 한국산학기술학회
- 최두훈·이상철(2020), 대학생의 스피치 효능감과 토론 효능감에 미치는 요인 : 미디어 이용, 이견 노출, 비주장적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영향 탐색,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2).
- 황태연(2017),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및 불안정서와 조직구성원의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 홍종명(2017), 다문화 이중언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이중언어강사 업무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68호, 이중언어학회
- Fatemeh Rabiee(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 655 - 660

## ■ 보고서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 년도
- 통계청(2107), 지역별 다문화 출생
- 통계청(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혼인상태
- 행정안전부(2008),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행정안전부(2017),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 인터넷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FGI의 전반적인 이해(<https://slidesplayer.org/slide/16769715/>)

(판권지)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평화교류회 연구단체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광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책임연구 : 윤명자

연 락 처 : 02-458-0666

발간등록번호: 51-6110100-000222-01

-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